

애들러 저 '독서의 기술'의 독서 수준에 대한 내용 비판적 검토

A Critical Contents Review of the Levels of Reading in the 'How to Read a Book' Written by Adler

소 병 문 (Byoung-Moon So)*

< 목 차 >

I. 서론	IV. 『독서의 기술』에서의 '독서 수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II. 『독서의 기술』의 서지 형식적 변화	V. 결론
III. 『독서의 기술』에서의 '독서 수준'에 대한 내용 분석	

요약: 이 연구는 Adler와 Doren의 '독서의 기술'을 대상으로 서지형식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내용적 특징을 검토해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관련 교재에서 인용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데 있다. '독서의 기술'은 독서 수준을 초급 독서, 점검 독서, 분석 독서, 신토피컬 독서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전 수준이 충족되어야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순차적 누적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 누적 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조건에 따라 두 방향으로 나뉜다. 초급 독서 수준을 넘어선 이후 한 권을 읽을 때는 '점검 독서-분석 독서'의 수준으로 전개되며, 주제를 통합해 읽을 때는 '점검 독서-신토피컬 독서'의 수준으로 전개된다. 또한 독서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신토피컬 독서는 신토피콘을 활용해 위대한 저서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과 동일 주제에 대하여 다른 여러 권을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용어로 번역해야 한다.

주제어: 독서교육, 독서의 기술, 독서의 수준, 신토피컬 독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ibliographic formation change process and to review the contents cited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extbook characteristics targeting 'How to Read a Book' written by Adler and Doren. This book is a classic that introduces how to read, and it is characterized by dividing the reading method according to the level. As for 'How to Read a Book', the level of reading was divided into four levels, elementary reading-inspectional reading-analytical reading-syntopical reading. The level of reading moves on to the next level only when the previous level is completed. This cumulative relationship does not appear only in one direction, but can be divided into two direction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reading the book. After reaching the level of elementary reading, when reading one book, it develops into the 'inspectional reading-analytical reading' or When reading the subject in an integrated manner, it develops into the 'inspectional reading-syntopical reading'. Syntopical reading, the highest level of reading, should be divided into an integrated way to read 'great books' using the Syntopicon and syntopical reading is an integrated way to read several different books on a single same topic. The original text distinguishes these two types using upper and lower case letters. However, the translation tex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se two types and uses the same ter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efinition of syntopical reading again through follow-up studies.

KEYWORDS: Reading Education, How to Read a Book, Levels of Reading, Syntopical Reading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장
(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 논문접수: 2024년 11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12월 8일 • 게재확정: 2024년 12월 1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363-386,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4.202412.363>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독서 자료로서 고전(classic, 古典)은 ‘인류가 쌓은 지혜를 전하고, 독자에게 삶의 통찰을 주며 오랜 시간 동안 읽힌 책’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박형우, 2004, 208). 동양권에서 전통적인 독서는 저자와 그 저작에 권위와 신뢰를 부여해 오랜 시간 저자가 남긴 의미를 파악하고 삶으로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독서 공동체가 수용한 저자의 생각과 그 저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그 권위와 가치가 쌓이고 읽히게 됨에 따라 고전의 위상을 갖게 된다(金德珍, 2002, 13). 고전이 자료 선택 이론에서 가치론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가 공유한 가치와 인정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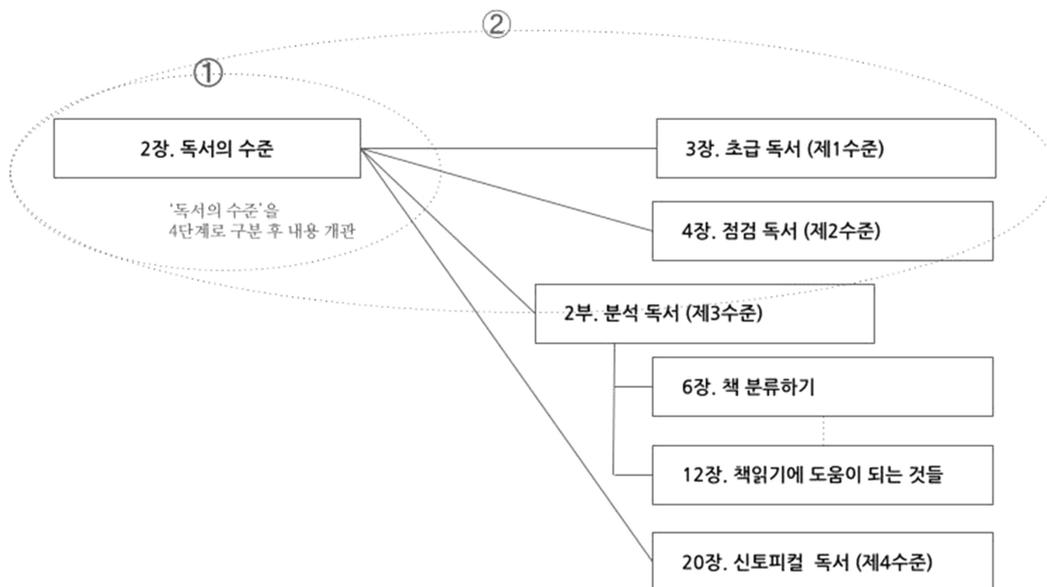
『How to read a book』은 책을 읽는 방법을 다룬 오래된 고전이다. 1940년 초판 발행 이후 두 번의 판올림 됐으며, 완전개정증보가 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mazon이나 Barnes & Noble과 같은 미국 인터넷 서점에서 교육 분야 내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1년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李福淑 譯)란 제목으로 번역된 이후 현재까지도 출판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M. J. Adler와 C. V. Doren은 재직 대학에서 서양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명사로,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독서 방법은 당대 미국 대학의 독서를 통한 교양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홍윤택, 이병승, 2021, 122).

이 연구에서 『How to read a book』을 주목한 이유는 독서(문해)와 관련된 인접 학문 분야에서 독서 관련 일반론으로 다루지 않는 ‘독서 방법’과 ‘독서 수준’을 문헌정보학 독서교육과 관련된 교재에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인용하기 때문이다(손정표, 2015; 변우열, 2015; 황금숙, 김수경, 2022). 다만, 이들 교재의 인용 내용은 독서의 수준과 수준별 방법을 개관한 『How to read a book』의 2장을 단순 요약한 수준으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원서의 판올림 횟수와 역서의 다양함 등을 고려할 때 『How to read a book』의 형식적, 내용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독서 방법’과 ‘독서 수준’을 2장에 국한하지 않고 책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미시적으로 훑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How to read a book』에서 제시한 ‘독서 수준’을 내용 교차 검증(contents cross validation)의 방법으로 살펴 본 후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교육 교재에서 제시한 독서 수준과 비교 검토해 시사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How to read a book』의 서지 형식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책은 현재까지 3번에 걸쳐 판올림을 했으며 그에 따른 서지 형식적 변화도 크다. 또한 국내에 번역된 역서 또한 7종에 이를 만큼 다양하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Adler와 Doren(1972)의 서지 형태적 변화 양상을 기반으로 독서 수준별 책을 읽는 방법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w to read a book』은 책을 읽는 과정을 '수준'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과 신토피컬 독서라는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다수의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교육 교재에서 주요하게 인용하였다. 하지만 이들 교재의 독서 수준 인용은 『How to read a book』의 2장 'the Levels of Reading'(Adler & Doren, 1972, 16-20)만을 대상으로 한다. 독서 수준을 단순 개관한 2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에(〈그림 1〉의 ①) 수준별 독서의 전개 양상은 한 방향의 순차적 누적 관계로 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Adler와 Doren(1972)의 목차 체계는 2장을 제외한 다른 장(章, chapter)은 단계별 독서 수준 명칭을 제목으로 설정할 만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독서 수준을 개관한 2장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독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하위 장의 내용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며(〈그림 1〉의 ②) 독서 수준을 비교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1〉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에 대한 접근 방법

II. 『독서의 기술』의 서지 형식적 변화

1. 『How to read a book』의 서지적 개관

『How to read a book』은 시카고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철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M. J. Adler가 1940년에 Simon and Schuster lmt.를 통해 출판하였다. 이 책은 독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는 세간의 평을 받으며 여러 언어로 번역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Adler, 1966, vii). 초판 출판 이후 이 책은 1966년에 특별판(special edition)으로, 1972년에 C. V. Doren이 공저자로 참여해 기존판의 목차 체계와 본문 내용 상당, 그리고 부록 체계를 바꾼 완전개정증보판(completely reversed and updated edition)으로 판올림하였다. 『How to read a book』의 서지사항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How to read a book』의 판차 변화

약호	서명	부제	저자	출판사	판차 사항
Adler(1940)	『How to read a book』	'The Art of Getting a Liberal Education'	Adler	Simon & Schuster	초판
Adler(1966)		'A Guide to Reading the Great Books'			특별판
Adler와 Doren(1972)		'The Classic Guide to Intelligent Reading'	Adler & Doren		완전개정증보판

초판 Adler(1940)는 '교양 교육의 방법'이란 부제를 달고 있으며, 3개의 부(部, part)와 하위 17장으로 이루어졌다. 1부는 '읽기 활동'이란 제목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책 읽기에 대한 일반론을 담고 있다. 8개 장으로 구성된 2부는 '다양한 읽기 규칙'이란 제목으로, 책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규칙)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3부는 '독자의 삶'이란 제목에 3개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자로서의 삶에 대한 지향과 방향을 담았다. 이 책의 부록은 서양 고전 읽기를 위한 '위대한 저서'의 목록을 수록하였다. 특별판 Adler(1966)는 '위대한 저서를 읽기 위한 안내서'란 부제를 달고 있으며, 초판의 본문 내용 목차 체계를 따른다. 특별판으로 구분된 이유는 초반 대비 서문과 부제, 그리고 부록이 바뀌었고 16장의 일부 내용(2쪽 분량)이 추가되었다. 또한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의 목록을 저자와 제목으로 재정렬해 부록으로 실었다. 결국 Adler(1966)는 초판의 본문 체계에 서문과 내용 일부, 그리고 부록이 바뀐 Adler(1940)와 거의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Adler와 Doren(1972)은 '지적 독서에 이르는 고전(읽기) 안내'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앞선 Adler(1940; 1966)와는 내용 목차 체계 전반이 다른 완전개정증보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목차 체계는 4부 21장으로 구성하였다. 1부는 '읽기의 다면 수준'이란 제목에 하위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으며, 2부는 '분석 독서'란 제목에 책을 읽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하위

8개의 장으로 제시하였다. 3부는 '분야별로 다르게 읽기'란 제목 아래 하위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4부는 '읽기의 최종 목표'란 제목에 하위 2개 장으로 이루어졌다. 부록 역시 Adler(1940: 1966)와는 다른 '위대한 저서' 목록을 실었으며, 이 목록을 대상으로 한 독서 수준별 연습문제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Adler와 Doren(1972)은 내용면에서 Adler(1940: 1966)에는 없던 분야별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같은 주제의 서로 다른 책을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는 수준인신토피컬 독서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Adler(1940: 1966)와 크게 다르다. 내용 목차 체계를 중심으로 두 종의 『How to read a book』을 비교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How to read a book』의 내용 목차 체계 비교

Adler(1940: 1966)	Adler와 Doren(1972)
서문	서문
1부. 읽기 활동	1부. 읽기의 다면 수준
1. 일정 수준의 독자에게	1. 읽기 활동과 기술
2. "독서"로서의 읽기	2. 독서의 수준
3. 읽기는 학습이다.	3. 초급 독서 (독서의 제1수준)
4. 교사, 죽느냐 사느냐	4. 점검 독서 (독서의 제2수준)
5. 학교의 패배	5. 의욕적인 독자가 되는 방법
6. 스스로 (읽기) 돕기	
2부. 다양한 읽기 규칙	2부. 분석 독서 (독서의 제3수준)
7. 많은 규칙에서 하나의 습관까지	6. 책 분류하기
8. 서명에서 의미 찾기	7. 책을 꿰뚫어 보기
9. 글의 구조 파악하기	8. 저자와의 협약 맺기 (용어 파악하기)
10. 주요 용어로부터	9. 저자가 주는 메시지 찾기
11. 명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10. 공정하게 책을 비평하기
12. 읽은 후 말하기의 예절	11. 저자에게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13. 독자가 머무를 수 있는 것들	12.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
14. 더 필요한 규칙	
3부. 독자의 삶	3부. 분야별로 다르게 읽는 방법
15. 풍요롭거나 그렇지 않거나	13. 실용서 읽는 방법
16. 위대한 저서	14. 문학 읽는 방법
17. 자유로운 마음과 인간	15. 소설, 희곡, 시 읽는 방법
	16. 역사서 읽는 방법
	17. 자연과학서, 수학서 읽는 방법
	18. 철학서 읽는 방법
	19. 사회과학서 읽는 방법
	4부. 읽기의 최종 목적
	20. 주제 통합적 읽기 (독서의 제4수준)
	21. 책 읽기와 마음의 성장
부록: 위대한 저서 목록	부록 1. 추천도서 목록
색인	부록 2. 독서 수준별 연습문제와 테스트
	색인

2. 역사 '독서의 기술' 류의 서지적 개관

『How to read a book』은 '도서출판 문경'에서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李福淑 譯)란 제목으로 1981년에 최초 번역돼 국내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책보다는 '범우사'에서 번역한 『독서의 기술』이 널리 알려졌다. 이후 국내 역서는 서명과 출판사를 달리해 5권이 더 출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How to read a book』의 국내 역서 모두를 통칭할 때 '독서의 기술' 류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역서의 서명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서의 서명을 유추하기 어려우며, 『How to read a book』은 범우사의 『독서의 기술』이 베스트셀러가 돼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독서의 기술' 류는 모두 완전개정증보판인 Adler와 Doren(1972)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이지만, 출판사에 따라 일부 목차와 부록 등은 생략되기도 하며 기대 독자에 따라 주요 개념과 예시 사항 등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독서의 기술' 류의 간략한 서지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독서의 기술' 류의 서지 사항

약호	서명	저자	역자	출판사	판차 사항	비고
李福淑(1981)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M.J. 애들러/ C.V.도렌	李福淑	文耕	1981년 초판, 현재 절판	
민병덕(1986)	독서의 기술	모티머 J. 애들러(외)	민병덕	범우사	1986년 초판, 1993년 2판	
오연희(1997)	논리적 독서법	모티머 J 애들러, 찰스 반 도렌	오연희	예림기획	1998년 초판, 현재 절판	
독고앤(2000)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모티머 J. 애들러/ 찰스 반 도렌 공저	독고앤	멘토	2000년 초판, 현재 절판	판권 계약
허용우(2013)	독서의 기술: 책을 꿰뚫어보고 부리고 통합하라	M.J. 애들러 원저	허용우 글	너머학교	2013년 초판	
독고앤(2021)	교사 없는 독서법: 스스로 키우는 독서력	모티머 J. 애들러 · 찰스 반 도렌 지음	독고앤	물과숲	2021년 초판	판권 계약
독고앤(2024)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모티머 J.애들러 · 찰스 반 도렌 지음	독고앤	시간과공간사	2024년 초판	판권 계약

국내에서 출판된 '독서의 기술' 류는 모두 7권이다. 하지만 이 역서들은 완전개정증보판인 Adler와 Doren(1972)에 대한 동일 역본이라 하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초 역서인 李福淑(1981)은 다양한 주제 분야별 독서 방법을 소개한 3부 7개 장 가운데 문학 읽는 방법만 번역하였고 서문과 부록은 제외하였다. 민병덕(1986)도 李福淑(1981)과 마찬가지로 3부 가운데 문학 전반을 읽는 방법과 문학 갈래별 읽는 방법만 소개할 뿐 다른 주제 분야별 독서 방법은 생략하였다. 또한 독서

수준의 최상위인 신도피컬 독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가 사항인 부록을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원서와 역서의 목차 체계와 비교했을 때 민병덕(1986)에서 번역 누락된 부분은 5개 장, 원서 426쪽의 40%에 이르는 174쪽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李福淑(1981)과 민병덕(1986)은 선역본(選譯本, a selected, translated print)이라 할 수 있다.

오연희(1997), 독고앤(2000; 2021; 2024)은 Adler와 Doren(1972)의 전체 목차는 물론 서문과 부록 A, B까지 번역해 완역본(完譯本, a full-translated print)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고앤(2000; 2021; 2024)은 역자가 같은 점과 국내 에이전시를 통한 정식 출판 계약을 맺은 책이 특징이다. 이 세 권은 저작권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출판사를 달리해 같은 내용으로 출판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용우(2013)는 Adler와 Doren(1972)의 목차 체계 일부를 따르지만 본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Adler와 Doren(1972)의 9장은 '문장 대 명제, 중심 문장 찾기, 명제 찾기, 논증 찾기, 분석하며 읽기'의 하위 5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허용우(2013)의 8장¹⁾은 '핵심을 읽고 명제를 찾아내다, 명제 논증하기, 논증 찾아내기'의 하위 4개 단원으로 통합해 축소·번역하였다. 이는 역자가 서문에서 원서가 '서양 고전에 치우쳐 있고, 낯선 말이 많아' 10대들을 대상으로 '익숙한 책들과 예문들로 쉽게 풀어' 다시 썼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허용우, 2013, 9).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허용우(2013)는 청소년을 위한 개역본(改譯本, a adaptive-translated print)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국내 '독서의 기술' 류는 『How to read a book』의 완전개정증보판인 Adler와 Doren(1972)을 저본으로 번역되었다. '독서의 기술' 류 7종은 역서명이 모두 다르며, 역자가 목적에 따라 저본의 목차를 선별해 번역하거나 저본을 완역하였다. 이 두 유형의 역서는 원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번역하였지만 허용우(2013)는 원서의 목차 체계와 본문 내용을 청소년에 맞춰 내용을 통합 정리하거나 주요한 용어, 예시 등을 바꾸는 개작 수준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독고앤(2000; 2021; 2024)은 역서명과 출판사가 다르지만 역자가 같으므로 동일 역서로 볼 수 있다.

'독서의 기술' 류가 저본으로 선정한 Adler와 Doren(1972)은 서문(preface)과 4개 부, 21개 장, 그리고 2개 부록과 색인으로 구성되었다. '독서의 기술' 류의 원본 목차 반영 수준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 허용우(2013)의 목차 체계는 Adler와 Doren(1972)과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 허용우(2013)는 원서의 제5장과 제6장을 역서의 제5장으로 통합해 한 장씩 앞으로 끌리게 되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원서의 9장이 역서의 8장에 대응된 것이다.

〈표 4〉 ‘독서의 기술’ 류 목차 체계 비교

Adler와 Doren(1972)의 목차 체계	李福淑 (1981)	민병덕 (1986)	오연희 (1997)	독고앤 (2000 등 ²⁾)	허용우 (2013)
서문	X	○	○	○	X
1부. 독서의 다면 수준					
1. 읽기 활동과 기술	○	○	○	○	○
2. 독서의 수준	○	○	○	○	○
3. 초급 독서 (독서의 제1수준)	△	△	○	○	△
4. 점검 독서 (독서의 제2수준)	○	○	○	○	○
5. 의욕적인 독자가 되는 방법	○	○	○	○	△
2부. 분석 독서 (독서의 제3수준)					
6. 책 분류하기	○	○	○	○	△
7. 책을 꿰뚫어 보기	○	○	○	○	○
8. 저자와의 협약 맺기 (용어 파악하기)	○	○	○	○	○
9. 저자가 주는 메시지 찾기	○	○	○	○	○
10. 공정하게 책을 비평하기	○	○	○	○	○
11. 저자에게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	○	○	○	X
12.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	○	○	○	○	△
3부. 분야에 따라 다르게 읽는 방법					
13. 실용서 읽는 방법	X	X	○	○	○
14. 문학 읽는 방법	○	○	○	○	△
15. 소설, 희곡, 시 읽는 방법	△	△	○	○	○
16. 역사서 읽는 방법	X	X	○	○	○
17. 자연과학서, 수학서 읽는 방법	X	X	○	○	○
18. 철학서 읽는 방법	X	X	○	○	○
19. 사회과학서 읽는 방법	X	X	○	○	○
4부. 독서의 최종 목적					
20. 신토끼컬 독서 (독서의 제4수준)	○	○	○	○	△
21. 책 읽기와 마음의 성장	○	○	○	○	△
부록 A. 추천도서 목록	X	X	○	○	△
부록 B. 독서 수준별 연습문제와 테스트	X	X	○	○	X
색인	X	X	○	○	X

Ⅲ. 『독서의 기술』에서의 ‘독서 수준’에 대한 내용 분석

1.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에서의 『독서의 기술』의 내용 기술

『How to read a book』은 독서교육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 가운데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에서 많이 인용된다. 이 연구의 배경 또한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교육에서 이 책이 가진 위상

2) ‘독서의 기술’ 류 7중에서 독고앤(2000; 2021; 2024)은 서명과 출판사가 다르지만 동일 역자가 번역했고, 원서의 목차 체계 반영 수준이 모두 같기 때문에 독고앤(2000) 등으로 통합하였다.

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서교육 관련 주요 문헌정보학 교재는 Adler와 Doren(1972)의 2장 the levels of reading을 독서교육 이론으로 소개하였다(변우열, 2015; 손정표, 2015; 황금숙, 김수경, 2022). Adler와 Doren(1972)은 독서 수준을 모두 4단계로 구분하고 수준별 독서 방법을 제시하였다. 독서 수준에서 용어를 '종류(kinds)'가 아닌 '수준(levels)'을 선택한 이유는 더 높은 수준이 더 낮은 수준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순차적 단계성을 염두한 것이라고 밝혔다(Adler & Doren, 1972, 16). 일반적으로 '수준'은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지만, '종류'는 서로 다른 구분된 것을 가리킨다. Adler와 Doren(1972)에서 주목한 독서 수준은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독서 방법으로, 하나의 수준은 다음 수준에 흡수돼 누적되므로 가장 높은 제4수준은 앞의 세 개 수준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Adler와 Doren(1972)의 2장(the levels of reading)은 제1수준을 '초급 독서'(elementary reading)로 명명하고 읽기·쓰기를 전혀 못하는 어린이가 초보의 읽기·쓰기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수준의 독서는 주로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와 같이 주로 의미를 파악하는 책읽기를 한다. 제2수준은 '점검 독서'(inspectional reading)로, 한정된 시간 안에 체계를 세워 띄엄띄엄 중요한 부분을 골라 읽는 독서 방법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무엇에 대하여 쓴 것인가,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가'와 같이 내용에 대한 개관 수준으로 읽어내는 방법이다. 제3수준은 '분석 독서'(analytical reading)이다. 이 수준의 독서는 대상 도서를 철저히 읽어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낼 정도로 깊이 있게 읽는 것으로, 책 내용에 관하여 체계를 세워 질문하면서 읽는 방법이다. 시간 제약이 없다면 점검 독서와 다르게 한 권의 책을 읽는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독서 수준에 해당한다. 마지막 제4수준은 '신토피컬 독서'(syntopical reading)로, 가장 복잡하고 조직적인 독서 수준을 의미한다. 이 수준의 독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몇 권의 책을 서로 연관지어 읽는 방법으로 황금숙, 김수경(2022, 32)은 '비교 독서법'(comparative reading)으로 보았다.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변우열(2015, 470)을 참고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How to read a book』의 독서 수준

독서 수준	주요 내용
제1수준 초급 독서	- 초등학교 수준의 독서 - 초보적인 읽기, 쓰기 기술의 습득
제2수준 점검 독서	-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자료 읽기 - 체계적으로 도서의 구성과 내용 파악
제3수준 분석 독서	- 이해를 목적으로 정독하는 철저한 독서 -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독서
제4수준 신토피컬 독서	- 가장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독서 - 동일한 주제의 다른 책과 비교하며 읽기

Adler와 Doren(1972)은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에서 많이 인용된다고 전술하였다. 인용된 독서 수준의 내용은 <표 5>와 같이 교재별 큰 차이가 없지만 교재 내에서 인용되는 위상은 조금 다르다.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은 손정표(2015)와 황금숙, 김수경(2022)에서 독서교육 이론 전반을 개관하는 1장에서 독서 수준 일반으로 서술한 반면, 변우열(2015)은 독서 전략의 일부로 '신토피컬 독서'를 소개하며 남은 독서 수준도 함께 언급하였다.

손정표(2015, 16)는 독서교육 관련 주요한 개념을 정의하는 1장을 '독서의 정의, 독서 과정과 독서 수준, 독서의 목적, 독서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손정표(2015)의 1장은 독서 과정의 결과인 독해를 독자의 지식과 경험의 폭에 따라 층위를 구분한 것으로 보고, 이를 독서 수준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한 독서 수준은 Adler와 Doren(1972)과 함께 金炳元, 盧命完, 尹一善(1975, 12)의 3단계 독서 수준(평면 독서, 입체 독서, 비평 독서)을 추가하였다. 이 두 연구를 통합해 정리한 독서 수준은 독서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혀져 있는냐로 설명하였다. Adler와 Doren(1972)을 인용한 또 다른 교재는 황금숙, 김수경(2022, 31-33)이 있다. 역시 독서교육 관련 일반론을 다루는 1장을 '사회환경 변화와 독서, 국내외 독서 정책, 독서 개념, 독서 목적, 독서 수준, 독서 과정'으로 하위 단원을 구성하였다. 손정표(2015)와 다르게 Adler와 Doren(1972, 16-20)을 요약해 독서 수준 일반론으로 인용하였다.

한편 변우열(2015)은 독서교육 일반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장을 '독서의 의의와 목적, 독서의 유형과 독서법의 종류, 독서교육의 의의와 성격, 정보사회와 독서교육'으로 구성하면서 독서 수준을 1장에서 다루지 않았다.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을 독서교육 일반론으로 다루기보다 책을 읽는 종합적 독서 전략의 방법으로 신토피컬 독서를 인용하였다(변우열, 2015, 469-471). 물론 신토피컬 독서는 앞선 제1수준에서 제3수준에 대한 언급이 필연적이라 결과적으로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을 인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 인용에 대한 교재별 관점은 독서교육의 일반론으로 수용하느냐(손정표, 2015; 황금숙, 김수경, 2022)와 독서 전략의 방법으로 수용하느냐(변우열, 2015)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관점은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며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다.

2. 『How to read a book』의 내용적 검토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 상당수는 『How to read a book』의 '독서 수준'을 중요하게 인용하였다. Adler와 Doren(1972)은 전체 4부 2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명처럼 책을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주제 분야별로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 책의 목차 내용 체계를 참고하여 독서 수준과 그에 따른 독서 방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dler와

Doren(1972)은 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1부 2장에서 독서 수준을 4층위로 구분한 후 수준별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2장에서 독서 수준을 개관한 다음 3장부터는 독서 수준별로 상세하게 서술한다. 독서의 제1수준인 '초급 독서'는 1부 3장에서, 독서의 제2수준인 '점검 독서'는 1부 4장에서, 제4수준인 '신토피컬 독서'는 4부 20장에서 주된 내용을 설명하다. 그에 비하여 독서의 제3수준인 '분석 독서'는 7개 장을 통합한 부(部, part) 단위로 분량을 할애해 3부 전체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Adler와 Doren(1972)은 독서의 제3수준인 '분석 독서'를 책을 읽는 주요한 방법으로 설정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서의 제1수준인 초급 독서(elementary reading)에 대한 내용은 Adler와 Doren(1972)의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은 '(장의) 서론, 읽기를 배우는 단계, 단계와 수준, 고난도의 읽기 능력과 높은 교육 수준, 읽기와 교육의 민주주의적 이상'의 하위 5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초급 독서 수준의 내용을 설명한 소단원은 '읽기를 배우는 단계, 단계와 수준' 정도이다. '읽기를 배우는 단계'는 유능한 독자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이며, '단계와 수준'은 초급 독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도달해야 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Adler & Doren, 1972, 24-28). 이 두 소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독서의 제1수준, 초급 독서의 주요 내용

'(일반적인) 읽기를 배우는 단계'		'(초급 독서)의 하위 단계와 수준'		
1 단계	책을 읽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 단계. 신체 발달, 인지능력, 언어 능력, 사회 협업 능력 등을 갖춰야 할 단계	1 단계	읽기를 준비하는 단계임.	유치원
2 단계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으며, 간단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 글자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며 문맥 추론을 통한 의미 파악까지 이르지 못함.	2 단계	단어를 익히는 단계로 이는 단어가 늘어나며 문맥을 활용해 읽을 수 있음.	초등 1
3 단계	어휘력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모르는 단어는 문맥을 통해 추론해 파악할 수 있는 단계. 읽기 목적에 따른 다양한 주제 분야의 책들을 읽을 수 있음.	3 단계	기본적인 문맥 상황에서 벗어나 문서의 빈칸을 채울 수 있음.	초등 4
4 단계	책을 읽는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자기만의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개인화하는 단계	4 단계	모든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단계로, 단순하게 읽는데 그침.	고등학교 수준

3장의 남은 소단원, '고난도의 읽기 능력과 높은 교육 수준, 읽기와 교육의 민주주의적 이상'은 대학 이상 고등 교육에서 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이유가 기초 문해력 교육 수준인 초급 독서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라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맹 해결을 위한 초급 독서는 결국 다가오는 세상의 요구(민주적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Adler & Doren, 1972, 28-30). 다만 이들 소단원은 미국의 1970년대 독서교육사를 담고 있어 李福淑(1981), 민병덕(1986), 허용우(2013)에서는 누락되었다.

독서의 제2수준인 점검 독서(inspectional reading)에 대한 내용은 Adler와 Doren(1972)의 4장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점검 독서는 다음 수준인 분석 독서와 신토피컬 독서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다른 독서 수준과 다르다. 점검 독서는 읽으려 책이 어떤 내용이며, 저자의 주된 의도가 무언지를 가볍게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독서 수준이다. 그렇지만 ‘수준’이 갖는 연속적(cumulative) 관계 때문에 독서 수준에 포함되었다(Adler & Doren, 1972, 31). 즉 초급 독서의 수준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점검 독서를 할 수 있으며, 점검 독서를 통하여 다음 수준인 분석 독서와 신토피컬 독서를 할 수 있다는 보았다.

이 장은 ‘(장의) 서론, 점검 독서 I, 점검 독서 II, 책을 읽는 속도, 눈의 움직임 교정, 이해력 높이기, 점검 독서 요약의 하위 7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점검 독서 수준에 대한 내용은 소단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점검 독서 I, II’에 해당하며, 개별 소단원은 각각의 부제는 체계적으로 훑어 읽기 또는 미리 보기와 피상적으로 읽기이다(Adler & Doren, 1972, 32-38). 이 두 소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독서의 제2수준, 점검 독서의 주요 내용

점검 독서 I: 체계적으로 훑어 읽기 또는 미리 보기	점검 독서 II: 피상적인 읽기
속표지나 서문을 보기	(이해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읽기
목차 보기	
색인 보기	
표지에 있는 광고문 보기	
논점의 중심이 될 만한 장을 찾기	
띄엄띄엄 책장을 뒤적여보며 골라 읽기	

독서의 제3수준인 분석 독서(analytical reading)에 대한 내용은 제2부 전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분석 독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독립된 7개의 장을 1개의 부(部, part)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분석 독서의 하위 7개 장은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장을 묶어 3개의 분석 독서 단계로 통합하고 그에 맞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1단계와 2단계는 분석 독서 수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3단계는 분석 독서를 통한 비평하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별 하위 장에서 언급한 분석 독서에 이르는 규칙은 모두 11개로 제시하였다. 분석 독서의 제1단계는 ‘무엇에 관한 책인가를 파악하기’를 제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독서 수준의 내용은 ‘6장 책 분류하기’와 ‘7장 책을 꿰뚫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다. 6장과 7장을 통하여 제시된 분석 독서 수준에 이르기 위한 규칙은 ‘책의 종류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기,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주요 부분을 찾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저자가 풀어가려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독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독서의 제3수준, 분석 독서의 주요 내용

단계 제목	장 제목	소단원 제목	분석 독서의 규칙
1단계. 무엇에 관한 책인가를 파악하기	6장. 책 분류하기	책 분류의 중요성, 서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론 서적과 실용 서적, 이론 서적의 종류	규칙 1. 책을 종류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기
	7장. 책을 꿰뚫어 보기	책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 책의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읽기와 글쓰기의 상호관계, 저자의 의도를 찾기	규칙 2.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규칙 3. 주요 부분을 찾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2단계. 책 내용을 이해하기	8장. 저자와의 합의하기	단어 대 용어, 핵심 키워드 찾기, 전문 용어와 특수 어휘, 의미 파악하기	규칙 4. 저자가 풀어가려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기 규칙 5. 중요한 단어를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9장. 저자가 주는 메시지 찾기	문장 대 명제, 중심 문장 찾기, 명제 문장 찾기, 논증 문장 찾기, 해결 방안 찾기	규칙 6. 중요한 문장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명제 찾기
			규칙 7. 저자의 논증을 문장과 연관 속에서 구성해 보거나 찾기
3단계. 지식의 전달로서 책을 비평하기	10장. 공정하게 책을 비평하기	미덕으로서 배움, 수사(修辭)의 역할, 판단 유보의 중요성, (불필요한) 논쟁 상황 피하기, 반론에 대한 해결 방안	규칙 8. 저자가 풀어나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를 구분하고, 못 풀 문제에 대한 저자의 인식 파악하기 규칙 9. 의견이 같거나 다르다고 표현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해하기
	11장. 저자에게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편견과 판단, 저자의 타당성 판단하기, 저자의 완전성 판단하기	규칙 10. 찬성하지 않을 경우 트집을 잡거나 따지지 않기
			규칙 11. 지식 차원인가 개인 의견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비평의 근거 제시하기
12장.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		관련 경험의 역할, 다른 책이 주는 도움, 주석서나 발췌문을 사용하기, 참고도서 사용하기, 사진 사용하기, 백과사전 사용하기	비평할 내용에 대한 기준

독서의 제4수준인 신토피컬 독서(sytopical reading)에 대한 내용은 Adler와 Doren(1972)의 20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Adler와 Doren(1972)은 신토피컬 독서를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았다. 이 장은 '(장의) 서론, 신토피컬 독서에서 살펴보기의 역할, 신토피컬 독서의 다섯 단계, 객관성, 신토피컬 독서의 사례, 신토피컬과 그 사용법, 신토피컬 독서의 바탕이 되는 원리' 등 하위 7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었다. 신토피컬 독서는 이 책의 저자인 Adler가 처음 소개하는 독서 수준이기 때문에 신토피컬 독서의 원리와 사례, 그리고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신토피컬 독서의 이전 수준인 점검 독서와 분석 독서와의 관계를 '신토피컬 독서에서 살펴보기의 역할' 소단원에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Adler & Doren, 1972, 313-316).

신토피컬 독서는 한 권을 깊게 읽는 분석 독서와 다르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책을 통합해 읽는 수준이고 하위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Adler & Doren, 1972, 313-316)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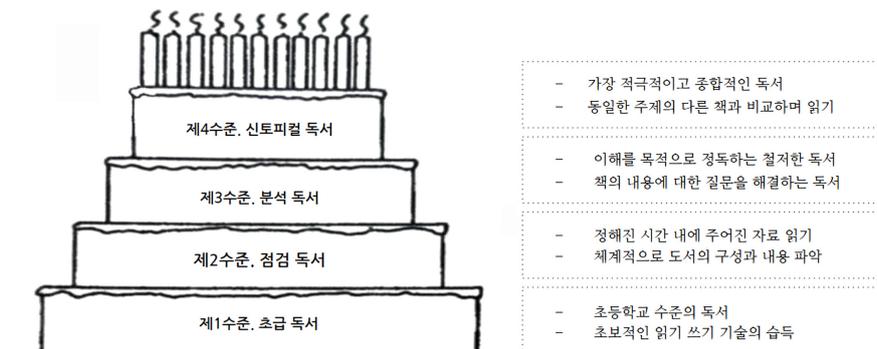
〈표 9〉 독서의 제3수준, 신토피컬 독서의 주요 내용

소단원 제목		주요 내용
신토피컬 독서에서 살펴보기의 역할		신토피컬 독서에서 점검 독서 적용의 필요성
신토피컬 독서의 다섯 단계	1단계	주제와 관련된 문단 찾기
	2단계	저자로 하여금 단어의 의미에 맞추도록 하라
	3단계	질문을 명확히 하라
	4단계	쟁점을 규정지어라
	5단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라.

IV. 『독서의 기술』에서의 ‘독서 수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독서의 기술』에서의 독서 수준에 대한 재검토

첫 계단을 밟아야 다음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것처럼 Adler와 Doren(1972)은 의도적으로 독서를 가장 낮은 ‘수준’(levels)을 완성한 후 다음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순차적 누적 활동으로 설명하였다. 종류(kinds)는 서로 범주 영역이 다른 배타성 때문에 위계를 세울 수 없는 수평적 관계인 반면, 수준은 이전 수준이 충족돼야 도달할 수 있는 수직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Adler & Doren, 1972, 16-18). 독서 능력의 발달 과정은 독서 수준과 같은 누적 관계로 설명된다. 고전적인 독서 능력 발달 단계 모형은 넓은 하단 케익(첫 번째 수준)을 만든 후 다음 단계의 케익(두 번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마치 다층의 웨딩케이크처럼 누적 관계로 설명된다. 독서 수준은 독서 능력의 발달 전개 과정과 같은 순차적 누적 관계인 점을 고려해 웨딩 케익 모형으로 적용해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2024, 108-109).



〈그림 2〉 웨딩 케익 모형을 적용한 독서 수준 모형

*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2024, 109)의 생일 케익 이론을 4단계의 독서 수준으로 정리함.

독서 수준을 개관한 2장은 초급 독서를 '초등학교 수준의 독서'와 '초보적인 읽기와 쓰기 기술의 습득'으로 특징지었으며, 이에 대하여 3장은 초급 독서의 하위 4단계로 구분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초급 독서의 책을 읽는 수준은 가장 낮은 1단계인 '문자를 읽기 위한 준비(reading readiness)'에서 가장 높은 4단계인 '고등학교 수준의 읽기 능력(to do high school work)'으로 나뉜다(〈표 6〉 참고). 초급(elementary)이라는 용어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향평가 설명되지만, 초급 독서 수준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수준의 문해 능력(ninth grade literacy)에 해당된다. 다만 이 수준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주제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유능한 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독서의 제2수준인 점검 독서에 대하여 2장은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읽기'와 '책의 내용을 파악하기'로 개관한 반면에, 4장은 점검 독서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훑어 읽기(systematic skimming) 또는 미리 읽기(pre-reading), 그리고 피상적으로 읽기(superficial reading)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표 7〉 참고). 훑어 읽기 또는 미리 읽기는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속표지, 서문, 목차, 서문 등과 같은 주변적인 정보를 통하여 내용의 큰 골격을 파악하는 독서 전략이다(변우열, 2015, 468-469). 피상적으로 읽기는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훑어 읽거나 미리 읽기, 피상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앞선 제1수준인 초급 독서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한 것이다.

독서의 제3수준인 분석 독서에 대하여 2장은 '이해를 목적으로 정독하는 철저한 읽기(closed reading)'와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읽기'로 개관하였으며, 2부의 하위 7개 장은 분석 독서의 읽기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분석 독서의 수준의 읽기는 먼저 무엇에 관한 책인지 파악한 후(분석 독서의 1단계), 내용을 이해하고(분석 독서의 2단계), 다 읽은 후 내용에 대한 비평을 하는(분석 독서의 3단계) 과정으로 설명하였다(〈표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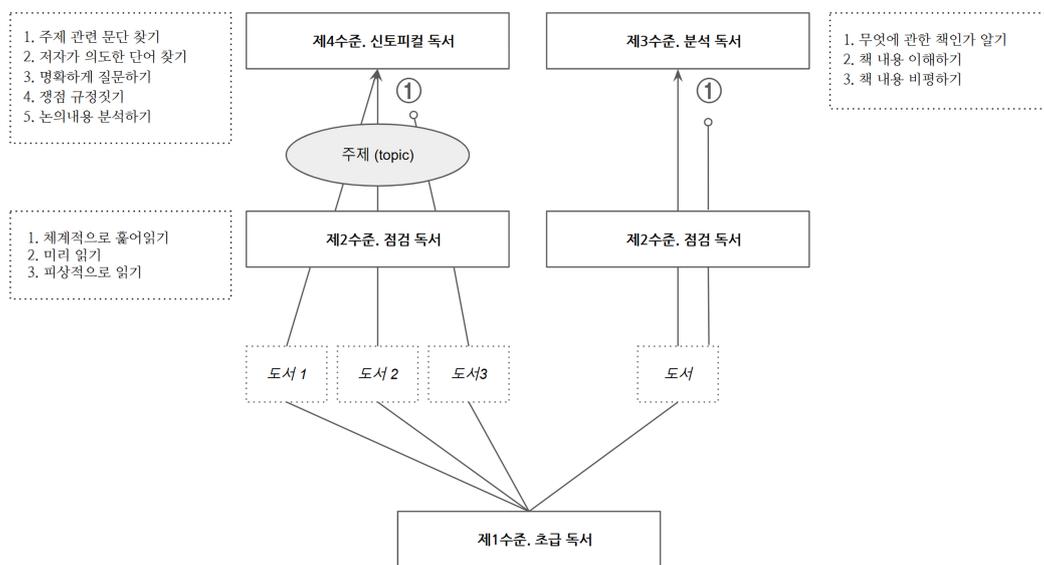
독서의 제4수준인 신토피컬 독서에 대하여 2장은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독서'로 개관하였다. 신토피컬 독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독서의 제2수준인 점검 독서를 통하여 주어진 책이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 그렇게 모은 다수의 책을 제3수준인 분석 독서의 방법으로 읽어 그 내용을 주제에 맞춰 통합하는 독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신토피컬 독서의 전개 과정은 2장의 내용(〈그림 1〉의 ①)으로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앞선 독서 수준이 차곡차곡 쌓여야 완성되는 순차적 누적 관계에 근거한 독서 수준이다.

그렇지만 20장은 '신토피컬 독서 방법의 다섯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과 함께 '살펴보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표 9〉 참고). 이 살펴보기는 동일 주제의 다른 책을 비교하며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 주어진 책이 주제와 맞는지³⁾를 확인하는 점검 독서의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분석 독서의 방법은 한 권만 읽을 때에 적용⁴⁾되기 때문에 신토피컬 독서의 과정에서 제외하

3) ... whether the book says something important about his subject or not(Adler & Doren, 1972, 315).

4) ... the art of analytical reading applies to the reading of a single book(Adler & Doren, 1972, 315).

였다. 오히려 살펴보기를 통하여 주제와 관련성을 확인한 책을 구분한 후 (분석 독서를 거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읽는⁵⁾ 것을 신토피컬 독서로 설명하였다. 독서 수준을 개관한 2장만 살펴보았다면 독서 수준은 한 방향의 웨딩 케익 모형으로 전개되지만, 수준별 상세한 내용과 함께 비교해 살펴보면 한 권의 책을 깊게 읽느냐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책을 통합해서 읽느냐에 따라 독서 수준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독서 수준의 전개 모형

Adler와 Doren(1972)의 2장은 독서 수준의 내용을 간략하게 개관하였으며, 독서의 제1수준에서 제4수준까지 한 방향의 순차적 누적 관계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2장의 독서 수준 개관과 3장 이후 독서 수준별 상세 내용을 대비해 살펴보면 독서 수준은 책을 읽는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깊게 읽는 독서는 ‘초급 독서→점검 독서→분석 독서’의 방법으로 전개되며, 같은 주제의 다양한 책을 통합해 읽을 독서는 ‘초급 독서→점검 독서→신토피컬 독서’의 방법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두 갈래의 독서 수준 전개 과정에서 점검 독서는 다음 수준의 분석 독서 또는 신토피컬 독서로 넘어가는 판단의 기준(<그림 3>의 ① 참고)이 된다. 다만, 책을 읽는 조건(단일 도서 읽기, 같은 주제에 대한 다수 도서 읽기)과는 무관하게 독서 수준 명칭을 제3수준, 제4수준과 같은 서수(序數)를 사용해 순차적 누적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에

5) ... you have identified, by inspection, the books that are relevant to your subject matter, you can then proceed to read them syntopically(Adler & Doren, 1972, 315).

한 방향의 웨딩 케익 모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독서 수준의 웨딩 케익 모형은 2개로 제시해야 한다. 제4수준의 신토피컬 독서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생에게 최적화된 독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으며(Adler & Doren, 1972, 314), 또한 신토피컬 독서의 대상이 되는 일부의 주제는 분석 독서의 규칙을 적용해 의미를 파악⁶⁾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독서의 기술』에서의 신토피컬 독서에 대한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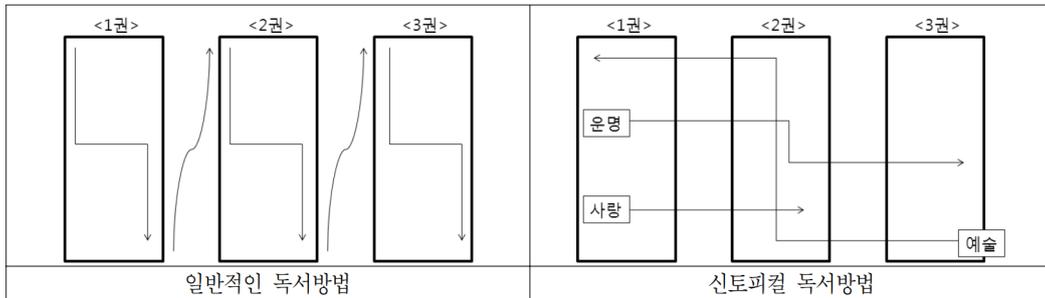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syntopical reading을 외래어로 보기에 신토피컬 독서로 기술하였다. '독서의 기술' 류에서 syntopical reading은 신토피컬 독서(민병덕, 1986; 李福淑, 1981), 종합적인 책읽기(오연희, 1998), 통합적인 독서(독고앤, 2002: 2021), 통합적 읽기(독고앤, 2024), 주제 통합 독서(허용우, 2013)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syntopical reading를 신토피컬 독서로 번역한 것은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신토피컬(칼) 독서로 번역했기 때문이다(변우열, 2015, 469; 손정표, 2015, 16; 이병기, 2011, 6; 황금숙, 김수경, 2022, 32-33).

신토피컬 독서의 syntopical은 syntopicon의 형용사형으로, Adler가 처음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영·미권 어학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다. 신토피컬의 근원이 되는 syntopicon은 '함께, 동시에'의 뜻을 갖는 접두사(syn-)와 '화제' 혹은 '토픽'을 의미하는 topic 그리고 '소립자, 단위'를 뜻하는 접미사(-on)를 결합한 신조어이다. 신토피콘은 우리말로로는 토픽 색인, 주제 색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며, 신토피컬은 신토피콘의 syn-topic에 형용사형 접미사 -al이 결합된 것으로 보거나(이병기, 2012, 6) '화제의' 또는 '문제가 되어있는 제목에 관한'이란 의미가 있는 topical에 '함께, 동시에, 비슷한'의 뜻을 가진 접두사 syn-이 결합돼 '동일 주제에 관한'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민병덕, 1986, 191). 다만 syntopical 정의에 대한 민병덕(1986)의 해석은 원서인 Adler와 Doren(1972)을 번역한 게 아니라 역자의 주관적 해석을 각주로 해설한 것이다.

Adler는 『How to read a book』을 처음 출판한 Adler(1940)는 독서 수준, 신토피컬 독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토피컬 독서에 대한 개념화는 Adler가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전집 54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주제 색인어 모음집인 Syntopicon을 개발한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dler는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의 별칭인 '위대한 저서' 한 권 한 권 정독하는 방법과 함께, Syntopicon을 활용해 주제 중심의 위대한 저서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으로 신토피컬 독서로 개념화하였다. 이후 Adler(1940)를 특별판으로 개정하면서 신토피컬 독서를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⁷⁾으로 소개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신토피컬 독서 방법으로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6) ... acquired by applying the rules of analytical reading(Adler & Doren, 1972, 316).

7) ... new way of reading, which I call syntopical reading(Adler, 1966, 323).



* 출처: 이병기(2012, 6)

〈그림 4〉 서양 고전을 읽는 두 가지 방법

『How to read a book』은 신토피컬 독서를 가장 높은 수준의 독서 방법이자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the ultimate goals of reading)으로 구분하였다(Adler & Doren, 1972, 307). 그렇다면 신토피컬 독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대적 배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How to read a book』의 판올림 변화 양상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간 차가 있으며, 저자인 Adler 역시 미국 교육계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끼친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독서교육은 아동의 흥미를 존중하는 진보주의 교육 사조에 영향을 받아 초등 학교 6학년까지 모든 창의적 노력과 재정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후 높은 학령기(고등학교까지)에 이르기까지 독서를 포함한 기초 학력은 고학년 수준으로 정체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Adler & Doren, 1972, x). 그 영향으로 대학생은 낮은 문해 수준을 유지했으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서양 고전 읽기와 같은 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00년대 전후부터 시작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은 1930년대 전후로 시카고대학교를 포함한 컬럼비아대학교, 노틀담대학교, 세인트존스칼리지 등 많은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 편성과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된다. 특히 Adler는 1929년 당시 재직 중이던 시카고대 총장인 Hutchins의 후원을 받아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을 기획하게 되었다. 서양 고전 읽기 교육 등을 포함해 총장 Hutchins의 대학 교육 개혁은 졸업생 상당수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1891년 개교한 시카고대를 명문대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손승남, 2013, 451).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Adler는 고전 읽기를 포함한 책을 읽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담은 『How to read a book』을 1940년에 출판하였다. 이 책의 부제가 '교양 교육의 방법'(the art of getting a liberal education)인 것과 고전 목록인 '서양의 위대한 저서들'(the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을 부록으로 수록한 것도 시카고대의 서양 고전 읽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홍윤택, 이병승, 2019, 166-167). 이후 Adler는 시카고대 내 서양 고전 읽기 정식 코스 워크인 '성인을 위한 교양 교육 프로그램'(the Basic Program of Liberal Education for Adults)을 개설하고(1946년), '위대한 저서 재단'(the Great Books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1947년). 또한 30여 명의 운영진과 7년 남짓 시간, 100만여 달러의 비용을 들여 Britanica社와 함께 1952년에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54권 전집을 발행하였다(노현균, 2007, 48). 특히 이 전집의 제2권과 제3권은 총 74명의 작가, 443편의 '위대한 저서' 원문에 대한 주제 색인어 모음집인 신토피콘을 수록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독서 방법이 신토피컬 독서이다(이병기, 2012).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대한 저서는 현존 작가의 작품을 배제하고 특정 지역, 특정 인종, 특정 성(gender)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 시작했다(Denvy, 1991, 31). 또한 그리스어나 라틴어와 같은 원전이 아닌 번역본으로 읽는다는 점, 엘리트주의적인 정전(canon)과 대서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한 점에서 서양 고전 읽기에 대한 비판은 본격화되었다(손승남, 2013, 457-458; Casement, 1996, 1-39). 위대한 저서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일기 시작한 이 시기에 『How to Read a Book』은 두 번 개정되었다. 특별판인 Adler(1966)는 초판인 Adler(1940)에 대비해 서문과 위대한 저서 목록인 부록을 전면 바꾸고, 16장 위대한 저서에 서론 성격에 해당하는 2쪽 분량을 추가했다. 바뀐 서문은 『How to Read a Book』의 집필 목적을 일반적인 책 읽기에 대한 방법이 아닌 위대한 저서를 읽기 위한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How to Read a Book』(1940)의 집필은 위대한 저서 한 권을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꿰뚫어 읽는 방법을 소개하려는⁹⁾ 의도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16장의 서론은 서양 고전을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으로 편성한 배경과 이 전집을 잘 읽기 위하여 개발한 신토피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dler는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전집이 출간되기 전에 위대한 저서를 대상으로 신토피콘 개발에 대한 구상은 있었지만 실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¹⁰⁾ 신토피콘을 활용한 신토피컬 독서는 위대한 저서 전반을 '폭넓게 읽을 수'(reading in)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별판인 Adler(1966)에서 신토피콘과 이를 활용한 신토피컬 독서의 개념을 처음 언급하였다면 완전개정증보판인 Adler와 Doren(1972)은 신토피컬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독서 수준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How to read a book』의 판차 변화 과정을 기준으로 Adler가 직접 관여한 미국 내 독서 교육 현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8) Readers of the book knew, though its title did not indicate this with complete accuracy, that subject was not how to read any book, but how to read a great book.(밑줄은 원저자 강조)(Adler, 1966, vii).

9) 'How to Read a Book' is intended to help the reader read a single great book through from cover to cover(Adler, 1966, xi).

10) I had dreamed of the Syntopicon, but I did not then think I would be a reality.

〈표 10〉 Adler와 Doren(1972)의 집필 배경

	독서교육 관련 Adler의 대의 활동	'독서의 기술' 관련 의미
1930년대	- 대학생 교양 교육을 위한 고전(위대한 저서) 읽기 활동의 활성화	-
1940년대	- 시카고대 내 '위대한 저서 읽기 과정' (the Basic Program) 개발 - 시카고대 '위대한 저서 재단' 설립 - Adler(1940) 출판	'위대한 저서'를 읽는 방법을 제시
1950년대	-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전집 발행	'신토피콘'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독서 방법의 필요성 인식
1960년대	- 고전 읽기에 대한 비판론 대두 - Adler(1966) 출판	'신토피콘'과 '신토피컬 독서'의 개념과 필요성 제시
1970년대	- Adler와 Doren(1972) 출판	'위대한 저서'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인 신토피컬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How to read a book』은 교양 교육의 방법으로써 서양 고전을 읽기 위한 실용서 성격(특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 책은 두 번에 걸친 판올림 과정을 통하여 고전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범용성이 넓은 독서 방법을 안내하는 실용서(일반 목적)로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독서 관련 고전으로 확장되었다.

신토피컬 독서는 Adler(1966)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Adler와 Doren(1972)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소개되었다. 앞선 논의를 참고하면 신토피컬 독서는 주제 색인 모음집인 신토피콘을 활용해 위대한 고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고전 독서 방법'(특수 목적)이다. 또한 신토피컬 독서는 위대한 고전이 아닌 임의의 주제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일반 목적)이기도 하다. Adler는 『How to read a book』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의 신토피컬 독서를 전자는 Syntopical reading으로, 후자를 syntopical reading과 같이 대소문자로 구분하였다. 물론 Adler와 Doren(1972)의 신토피컬 독서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인 syntopical reading의 방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통합적 고전 독서 방법인 Syntopical reading을 포함한다고 밝혔다.¹¹⁾

가장 높은 수준의 독서인 신토피컬 독서는 좁은 의미로는 신토피콘을 활용한 위대한 저서를 통합적으로 읽는 방법이며, 넓은 의미로는 특정 주제에 대한 통합적 읽기 방법이다.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는 Adler와 Doren(1972)의 syntopical reading에 해당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통합적 읽기 방법을 신토피컬 독서를 개념화해서 사용한다. 영미권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통하여 서양 고전에 대한 통합적 독서 방법인 Syntopical reading을 대소문자 구분을 통하여 의미를 분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외래어로 신토피컬을 사용한다면 신토피콘을 활용한 서양 고전에 대한 통합적 독서 방법인 Syntopical의 의미로 오역이 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독서교

11)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syntopical reading, with a small "s", and Syntopical reading, where the letter phrase refers to reading the great books with the help of the Syntopicon. ... But syntopical reading with a small "s" is a term of much wider application than Syntopical reading(Adler & Doren, 1972, 332-333).

육 교재에서 인용한 syntopical reading은 특정 주제를 공유하는 다양한 대상 도서를 통합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번역해 Syntopical reading과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복수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과 같은 텍스트 이론을 통하여 주제별 통합 독서 방법을 개념화한 박정진(2014)을 참고할 수 있다. 신토피컬 독서의 개념 재정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기대해본다.

V. 결 론

『How to read a book』은 교양 교육의 방법으로써 서양 고전을 읽기 위한 실용서 성격으로 1940년에 출판되었다. 이후 서양 고전의 선집 성격이 짙은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전권 54)가 1952년 간행되었으며 고전 읽기에 대한 비판론이 등장하기 전인 1960년대까지 49,000세트가 판매될 만큼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Adler, 2000, xx). 하지만 고전 읽기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자 Adler는 신토피컬을 활용한 고전 읽기의 가치와 필요성을 새롭게 추가한 특별판인(Adler, 1966)을 출판하였으며, 5년 후에는 Adler(1940: 1966)를 큰 축으로 책을 읽는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수준별로 해당하는 상세한 독서 방법과 7개 주제 분야별로 구체적인 독서 방법을 담은 완전개정증보판인 Adler와 Doren(1972)을 출판하였고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는 『How to read a book』이 책을 읽는 과정을 '수준'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신토피컬 독서라는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독서 수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상당수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개 Adler와 Doren(1972)의 2장 독서의 수준만을 대상으로 인용하였기에 독서 수준별 읽는 방법에 대한 정보 내용이 제한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독서 수준을 개관한 2장을 중심으로 수준별로 독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른 장을 중심으로 내용 교차 검증은 하여 독서 수준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독서 수준 전반을 개관한 Adler와 Doren(1972)의 2장 내용에 따르면 독서 수준은 다층 웨딩 케익처럼 '초급 독서-점점 독서-분석 독서-신토피컬 독서'와 같이 한 방향의 순차적 누적 관계로 전개된다. 하지만 Adler와 Doren(1972)의 독서 수준별 내용을 상세 내용을 담은 3장, 4장, 2부, 20장을 더하여 살펴보면 독서 수준은 책을 읽는 조건에 따라 두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권을 깊이 읽는 방법에는 '초급 독서-점점 독서-분석 독서'의 수준으로 독서가 전개되며,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책을 읽는 방법에는 '초급 독서-점점 독서-신토피컬 독서'의 수준으로 전개된다.

또한 문헌정보학 독서교육 교재의 신토피컬 독서라는 용어가 『How to read a book』에서 의도한 syntopical reading의 의미를 반영하는가도 살펴보았다. Adler와 Doren(1972)은 Syntopical

reading을 위대한 저서를 대상으로 개발된 주제 색인 모음집인 신토피콘을 활용한 '통합적 고전 독서 방법'으로, syntopical reading을 특정 주제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다양한 도서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Syntopical reading은 특정 저작군(『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통합적 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syntopical reading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용어의 배경 의미를 생각할 때 syntopical을 신토피컬과 같이 외래어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토피컬 독서에 대한 재개념화와 학교도서관에서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은 후속 연구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金炳元, 盧命完, 尹一善 (1975). 成人의 機能讀書力 發達을 위한 小規模 實驗研究. 行動科學研究, 8(11), 12-14.
- 金憶珍 (2002). 傳統的 讀書方法論의 現代的 受容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 노현균 (2007). 위대한 저서들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적 평가. 영미문학교육, 11(2), 45-63.
- 독고앤 (2000).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서울: 멘토.
- 독고앤 (2021). 교사 없는 독서법. 서울: 물과숲.
- 독고앤 (2024).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고양: 시간과공간사.
- 민병덕 (1986). 독서의 기술. 서울: 범우사.
- 박정진 (2014). 주제별 통합 독서(신토피컬 리딩)의 의미와 독서교육적 맥락. 독서연구, 32, 191-212.
- 박형우 (2004). 고전 자료와 독서 교육. 독서연구, 11, 207-228.
- 변우열 (2015). 독서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손승남 (2013).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7(4), 449-472.
- 손정표 (2015).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태일사.
- 오연희 (1997). 논리적 독서법. 서울: 예림기획.
- 이병기 (2012). '위대한 저서'의 토피색인, 신토피콘의 구조와 효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6-28.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2.005>
- 李福淑 (1981). 어떻게 책을 읽은 것인가. 서울: 문경.
- 천경록, 김혜정, 류보라 (2023). 독서교육론. 서울: 역락.

- 허용우 (2013). 독서의 기술. 서울: 너머학교.
- 홍윤택, 이병승 (2019). 애들러 독서교육론의 현대적 의의. 교육철학, 73, 165-195.
<http://dx.doi.org/10.22918/pesk..73.201912.165>
- 홍윤택, 이병승 (2021). 애들러 독서교육론의 인식론적 토대 연구. 교육사상연구, 35(2), 121-145.
<http://dx.doi.org/10.17283/jkedi.2021.35.2.121>
- 황금숙, 김수경 (2022). 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구: 태일사.
- Adler, M. J. (1940). How to Read a Book. New York: Simon & Schuster.
- Adler, M. J. (1966). How to Read a Book. New York: Simon & Schuster.
- Adler, M. J. (2000). How to Think about the Great Idea. Ed. Max Weismann, Chicago: Open Court.
- Adler, M. J. & Van Doren, C. (1972). How to Read a Book. New York: Simon & Schuster.
- Casement, W. (1996). The Great Canon Controversy. New Jersey: Transaction.
- Denvy, D. (1991). Great Books: My Adventures with Homer, Rousseau, Woolf, and other Indestructible Writers of Western World. New York: Simon & Schuster.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2015). Understanding of Reading Instruction.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Cheon, Kyeong-Rok, Kim, Hye-Jeong, & Lyu, Bo-Ra (2023). Reading Education. Seoul: Yeoklak.
- Dokgo-Aen (2000). A Reading Method that Broadens One's Thoughts. Seoul: Mentor.
- Dokgo-Aen (2021). A Reading Method without the Help of a Teacher. Seoul: Mulgoasoop.
- Dokgo-Aen (2024). A Reading Method that Broadens One's Thoughts. Goyang: Sigangoagonggansa.
- Heo, Yong-Woo (2013). The Art of Reading. Seoul: Neonmohakkyo.
- Hong, Yun-Taek & Lee, Byung-Seung (2019). The modern significance of Adler's theory of reading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73, 165-195.
<http://dx.doi.org/10.22918/pesk..73.201912.165>
- Hong, Yun-Taek & Lee, Byung-Seung (2021). A study on the epistemological doudation of Adler s reading education theory. The Journal of Educational Idea, 35(2), 121-145.

<http://dx.doi.org/10.17283/jkedi.2021.35.2.121>

- Hwang, Geum-Suk & Kim, Soo-Kyeong (2022).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ading Guidance. Deagu: Teailsa.
- Kim, Byeong-Won, Roh, Myeong-Wan, & Yun, Il-Seon (1975). A small experi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ult reading ability. Behavioral Science Research, 8(11), 12-14.
- Kim, Hye-Jin (2002). A Discussion of the Relative Acceptance of Traditional Reading Method. Master's thesis, Major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Byeong-Ki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ructure and utility of topic index, Syntopicon in great boo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6-28.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2.005>
- Lee, Bok-Suk (1981). How to Read a Book. Seoul: Munkyeong.
- Min, Byeong-Deok (1986). The Art of Reading. Seoul: Beomwoosa.
- Oh, Yeon-Hee (1997). A Logical Way of Reading. Seoul: Yeringihoik.
- Park, Jung-Jin (2014). The meaning of 'syntopical reading' and reading educational context.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2, 191-212.
- Park, Hyeong-Woo (2004). The korean classic materials and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1, 207-228.
- Roh, Heon-Gyun (2007). A cultural review of the great books program: a case study of the committee on social though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Columbia University. 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11(2), 45-63.
- Son, Jeong-Pyo (2015). Neo Reading Guidance Methodology. Deagu: Teailsa.
- Son, Seung-Nam (2013). The great books program and the direction of humanities & classic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4), 449-472.